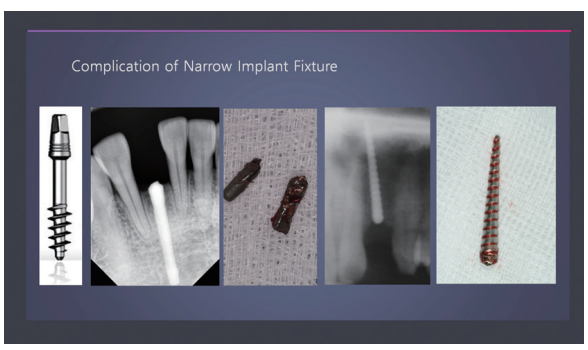
파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어뷰트먼트로 연결되는 Two Piece 미니 임플란트의 경우는 임플란트와 어뷰트먼트의 연결 부위가 갈라지는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어 교합력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그림8〉 사용 중에 부러진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와 제거한 결과



〈그림9〉 사용 중에 지대치 연결부가 갈라진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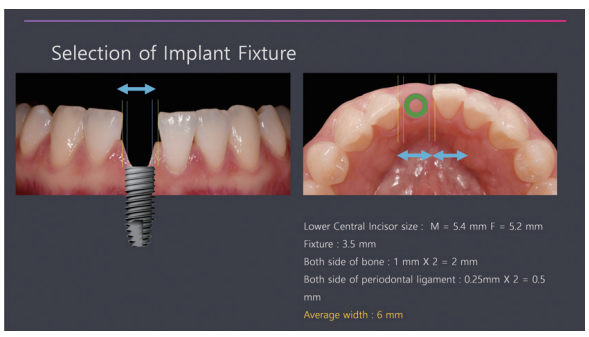
4) 하악 전치부의 해부학적 고찰

어뷰트먼트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폭경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3.5mm에서 4.0 mm 폭경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하악에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이상적으로 필요한 근원심 폭경은 3.5mm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치아와 안전한 거리 1.25mm이고 이를 정리하면 최소 6mm의 근원심 폭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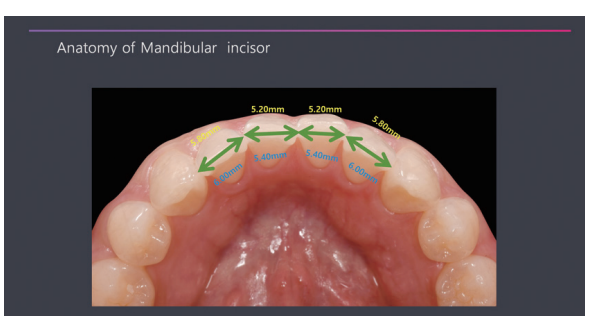
그러나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발간된 백서의 한국성인 정상교합자의 치아 크기와 비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하악 중절치의 평균적인 크기는 남자의 경우 5.38mm(S.D. 0.26mm) 여자 5.20mm(S.D. 0.29mm), 하악 측절치의 폭경은 남자 6.02mm(S.D. 0.28mm) duwk 5.80mm(S.D. 0.33mm)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하악 전치부에 식립하는 경우 평균 이상의 치아 크기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근원심 폭경이 부족하고 이는 임플란트의 실패 또는 임플란트가 치아를 건들어 원하지 않는 합병증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악 전치부 결손 시에 근원실 폭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니 임플란트(Narrow Diameter)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겠다.



〈그림 10〉 하악 전치에서 일반적인 임플란트의 식립 시에 이상적인 근원심 공간



(그림 11) 한국 성인 정상교합자의 치아 크기 연구의 평균 치아의 크기

다음호 게재 예정

미니 임플란트(Narrow Diameter)의 임상적 고찰(하)
1) 하악 전치의 임플란트의 치료계획
2) 하악 전치의 상실치 미니 임플란트를 수술
3) 하악 전치 상실 시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김현종 원장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대구 카톨릭 대학교 외래교수
· 대한심미치과학회 이사
· 대한악안면임플란트학회 이사
· 대한레이저치의학회 부회장
· 서울탑치과병원 원장